

새 책

▶철수삼촌(김남윤 지음)=연쇄살인범의 뒤를 캐며 수사망을 좁혀가는 스틸러, 어딘지 모자라서 더 눈길 가는 캐릭터의 코미디, 뼈적거리면서도 어찌어찌 굴러가는 현실적인 드라마 요소가 버무려진 소설. 상황과 상황이 맞물리는 여러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내는 스토리텔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을 수상했다. 제주출신인 저자가 세상에 내어놓는 첫 작품이기도 하다. 팻토리나인. 1만4000원.



▶직장김밥 50수(김용진 지음)=12년간 라디오에서 직장인들의 현실 고민을 듣고 상담의 김을 휘둘러온 제주출신 커리어 컨설턴트가 사회생활 초반, 2030세대가 겪을 수 있는 단내 짠내 다나는, 때로는 분노를 담은 현실적인 고민과 상담 내용을 담았다. 부당한 상사의 지시, 성격 안 맞는 직장동료와의 소통 등 직장에 다니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힘든 상황들을 재미있고 쉽게 풀어냈다. 미다스북스. 1만5000원.



▶경주(천년의 여운)(임찬웅 지음)=역사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들려주고 싶은 경주 이야기다. 25년간 국내외 수많은 문화유산을 해설하면서 축적한 인문학적 경험을 모아 글로 정리했다. 현장에서 해설을 들었던 답사객들의 요청도 한몫했다. 해설한 내용을 책으로 정리할 생각은 없나? 라는 요청을 받고 용기를 내어 정리하고 세상에 내놓았다. 아스미디어. 2만원.



▶몽테뉴와 함께하는 여름(양투양 공파농 지음, 김병욱 옮김)=16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문학자이자 '수상록'의 저자, 에세이라는 문학 형식의 근원이 된 사람, 미셀 드 몽테뉴. "나는 무엇을 아는가?"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은 회의론자 몽테뉴의 유쾌한 지혜를 인문학자 양투양 공파농이 탁월한 해석으로 소개한다. 뮤진트리. 1만5000원.



▶법륜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법륜 지음)=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심오한 불교 사상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더욱더 쉽고 명쾌하게 풀어냈다.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것이었다는 점에 누구나 놀라게 될 것이다. 정토출판. 1만9500원.



▶선생님, 채식이 뭐예요?(이유미 지음)=채식이 무엇인지, 채식이 왜 필요한지, 내 건강과 지구 생태계를 위해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지를 어린이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 준다. 채식이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멸종 생물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등 어린이가 채식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26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살펴 본다. 철수와영희. 1만3000원.



“반가사유상 보니, 어느덧 입가에 미소가”

황윤의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이르는
폼폼한 박물관 탐구서

황윤 작가는 “혼자 박물관과 유적지를 찾아 감상·고증·공부하는 것이 휴식이자 큰 즐거움”이라는 이른바 ‘박물관 마니아’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책을 쓴다면 그 주인공은 국보 ‘금동반가사유상’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다는 저자는 진짜로 반가사유상을 주제로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국립중앙박물관’(책읽는고양이 펴냄)을 내놓았다.

책은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전시된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과의 만남으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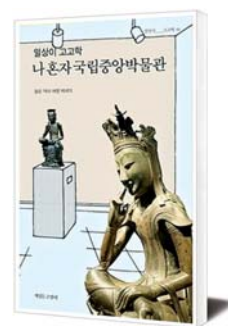
출판사는 “이 책을 통해 두 점의 반가사유상을 만나는 것이 단지 ‘사유의 방’이라는 공간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사

유의 방’으로 다가가는 과정을 400페이지가 넘는 책에 담은 것은 두 점의 금동반가사유상을 제대로 만나기 위한 일종의 준비이자 예의”라고 소개한다.

그렇게 저자는 두 반가사유상이 전시된 ‘사유의 방’에 이르기까지 박물관 1층에서부터 3층을 꼼꼼히 오가며 청동과 금의 흐름에서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힘의 이동, 불교의 역사 등을 이야기한다.

국립중앙박물관 1층 구석기·신석기 전시실에서 시작해 청동기, 고조선, 고구려 전시실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청동으로 제작된 몸체에 금을 칠해 완성시킨 반가사유상을 이해하기 위한 한반도 내 청동과 금의 흐름을 보여준다.

책은 크게 반가사유상, 청동기의 시작, 금의 시작, 고구려의 전성기, 신라와 고구려, 백제와 신



라, 가야와 금, 불교의 도입, 미륵사상, 다시 국보 반가사유상 등의 제목을 단 10개 장으로 구성됐다.

‘사유의 방’을 관람한 저자가 프롤로그에 쓴 글의 일부를 옮긴다. “폼폼 같은, 그러니까 현실 같지 않은 장면이 감탄하며 한동안 두 반가사유상을 바라보니, 두 분의 미소가 오늘따라 더욱 내 맘에 잘 다가왔다.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미소보다 아름다운 미소가 열게 떠오르네.” 2만원.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

읽을수록 생각이 쌓이는 인문학 수업
조이엘의 '인문학 쫓아는 어른이 되고 싶어'

저자가 ‘캡투자, 고흐, 영조, 우주배경복사 등 무관한 단어들을 아슬아슬하게 연결해서 만든 한편의 이야기’라고 소개한 ‘인문학 쫓아는 어른이 되고 싶어’가 출간됐다.



제주의 출판사 섬타임즈에서 펴낸 이 책은 ‘1센티 인문학’을 쓴 조이엘 작가의 두 번째 책이다.

저자가 이 책에 담은 154편의 이야기는 역사, 예술, 종교, 철학, 문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우리네 삶으로 끌어올려 흥미로운 교양 상식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등 삶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의 민낯을 거울처럼 비춰낸다. 서로 무관심하게 존재하던 지식과 정보들이 짙지만 강렬한 이야기들 속에서 촘촘히 엮여 단단한 지식들로 압축돼 있다.

프랑스의 독특한 부동산 거래 방법인 ‘비아제 거래’를 통해 오늘날의 노인 빈곤 문제를 꺼내고, 당나라 고승이 지은 ‘증도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어진 이야기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이웃에 대해 고민해보게 한다.

출판사는 “작가의 기발한 안목과 삶의 길라잡이가 될 해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만6000원.

제주 중산간 마을 풍경과 삶 담은
시린 사진시집 '어명 님은 섬 노래'

해를 따라 서쪽으로, 다시 해 뜨는 동쪽으로 길을 찾아다니며 제주의 중산간 마을 풍경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시린(서은석) 작가의 신작 사진시집 ‘어명 님은 섬 노래’가 제주의 출판사 한그루에서 최근 출간됐다.



크게 2부로 구성된 책에는 제주시 지경 중산간 마을 32곳과 서귀포시 지경 중산간 마을 31곳의 풍경이 담겼다. 작가는 때로는 폭낭(뽕나무) 그늘에 앉은 할머니들의 대화에 귀를 세우고, 길에서 만난 이들의 호의에 감동하며, 삶이 그려낸 낡고 정겨운 풍경에서 멈춰 쉬기도 한다.

제주어 입말을 한껏 살린 시들이 각주를 달았고, 본문 전체를 제주어로 쓴 시는 ‘표준어로 읽는 시’로도 바꿨다. 책 속 여백을 일부러 비워 독자들이 필사를 하거나 글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출판사는 “이 책은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이들의 소박하고 정다운 일상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소개한다. 2만2000원.

오른지기자

새롭게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혁신 기업은?

김창훈의 '넥스트 팡'

“리더십, 기술의 혁신성,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선한 가치, 수많은 스타트업의 ‘롤 모델’이라는 상징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돼야 FAANG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FAANG의 바통을 이을 기업은 누가 될 것인가.”(서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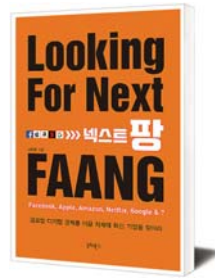
IT시장분석 전문가인 제주출신 김창훈씨(KRG 프로젝트 총괄 분부장)는 오랜 기간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 ‘넥스트 팡’(갈라북스 펴냄)에서 이른바 ‘팡(FAANG:Facebook(Meta), Apple, Amazon, Netflix, Google)’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리딩 기업의 역량과 빅테크 선도 기업의 조건, 주요 산업별 디

지탈 경쟁력 및 최신 IT트렌드 등을 조망한다.

도입부에선 새로운 FAANG의 출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향후 10년을 이끌 디지털 키워드 15’와 ‘넥스트 FAANG의 조건 10’에선 최신 IT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저자는 “FAANG의 후계자들은 공통적으로 CEO의 선한 의도와 추진 의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등 가장 경영의 기본 철학에 충실했다”고 말한다.

‘FAANG의 후계자들 50’에선 FAANG 이후 새롭게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혁신 기업 50개를 주요 핵심 분야별로 선정해 이들의 핵심 사업 역량과 기술력,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저자는 “이 책이 독자들에게 디지털 변혁기를 맞아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리더들을 찾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한다.

출판사도 “관련 시장, 기술, 경제 등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사업전략, 투자정보 및 새로운 상식과 관련 교육 등에 관심을 펼치는 분들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라고 소개한다. 1만5000원.

오른지기자

승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장



소방정(서기관) **고정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노형동
정존마을회·정존노인회·정존부녀회·정존청년회

취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원 도민안전실장




양경호 강동원

취임 및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동일리마을회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6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리'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